

# 신문과 TV의 영향

송 명 재

한전 전력연구원 방사선안전그룹장

**사** 람이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때문이다. 인간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나누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대고 하는 '인격적 커뮤니케이션' 과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는 '비인격적 커뮤니케이션' 이 있다고 한다.

비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갖는 뉘앙스는 매우 미묘하다.

과거에 사회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촌락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하던 때에는 인격적 커뮤니케이션으로도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사회 구조가 대단히 복잡해짐에 따라 비인격적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위력은 누구나 다 실감하고 있다.

TV같은 집단 매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가를 일순간에 대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전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함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기에 매스 미디어는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뉴스 매체는 사실 전달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편집자에 의해 선택될 수

밖에 없다.

78년 3월 28일 저녁, 미국의 CBS 뉴스는 마치 세상을 만난 것 같았다.

당시 미국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TV 뉴스 앵커였던 월터 크롱카이트의 보도는 가히 많은 미국인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밀어 넣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의 해리스버그시의 외곽에 있는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력발전소에서 난 사고를 보도하였다.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이 낸 실수와 장비의 결함이 한데 어우러져 원자로심이 녹아버리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해리스버그 시민들은 마치 세기의 재난 속에 갇힌 것 같았다.

월터 크롱카이트씨는 "나는 그게 무엇인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저 그 사고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라는 말로 저녁 뉴스를 마감했다.

신문들도 마찬가지였다. '펜실베이니아 원자력 사고로 운명의 날 경험하다' '사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10마일까지 죽음의 재 확산'

대문짝 만한 제목의 기사는 미국의 서쪽 끝에 사는 친척들이 해리스버그 주변에 사는 친지들에게

안부의 전화를 하여 전화선이 폭주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당시 쓰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다.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실 발전소 주변의 방사선량은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고를 취재하기 위해 사고 원자력발전소 안으로 들어갔던 기자들이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보다도 더 많은 방사선을 받았다. 나중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밝혀진 방사선의 영향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쓰리마일 원전에서 사고가 난 다음 달, 미국의 미주리주의 한 탁아소에서 불이나 34명이 사망했다.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서는 백화점 화재로 2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지진으로 235명이 죽었고 텍사스와 오클라호마를 덮친 회오리바람은 44명의 목숨을 허공에 날려보냈다. 그 해 5월에는 시카고에서 아메리칸 항공사의 DC10 비행기가 추락하여 27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런 사고들은 겨우 하루나 이틀 정도로 신문에 보도되었고, 어떤 것들은 신문의 가운데에 묻혀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에 비하면 쓰리마일 원전 사고는 인명 피해가 거의 없는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소란을 떨며 사회를 시끄럽게 할 정도로 보도가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과 과학간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과학은 누구나에게 똑같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만 언론 매체는 기업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기업은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 신문은 한 부라도 더 많이 팔아야 하고 텔레비전은 시청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 그럴테면 기사를 잘 선정해야 하고 또 내용은 독자의 구미에 맞게 잘 꾸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할 지면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과학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문적인 사건을 정확히 보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 기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언론이 과학 문제에 대해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볼 때 원자력에 관한 매스컴의 보도야말로 다른 어떤 분야의 사건에 대한 보도보다도 왜곡되기 쉽다.

독자들이나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무엇인가 쇼킹한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큰 화재나 큰 지진 또는 대형 참사가 실린 신문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않은 원자력은 옛날부터 비밀에 싸여있고 또 가공할만한 위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어떤 원자력 사건이 발생되면 기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기자들은 즉시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사건 그 자체보다는 '만약에……'로 시작되는 쇼킹한 뉴스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원자 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이나 기형아가 생기는 모습이 쉽게 연상되도록 보도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원자력은 그 개발 역사나 과거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원자 폭탄의 위력만으로도 언론의 재물이 되기에 충분히 불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